

### 판타지의 보고 서유기 TV 드라마로 만난다

BTN, 매주 금·토 밤 9시  
불교라디오 '올림' 앱 출시도

중국 4대 기서 중 하나인 <서유기>는 동양 판타지 콘텐츠의 보고다. 불교와 도교가 융합된 <서유기>는 현대에 와서도 다양한 변주를 쏟아내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병신년 원숭이 해를 맞아 <서유기>가 TV 드라마로 불자들의 안방을 찾아간다. BTN불교TV(대표 구본일)는 장편 52부작 드라마 '서유기'를 4월 1일 시작으로 방송에 들어갔다.

<서유기>는 불경을 구하기 위해 서역으로 가는 삼장법사를 수행하는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이 온갖 요괴를 퇴치하고 깨달음을 얻어 투전승불(싸워서 이긴 부처)로 거듭나게 된다는 내용으로 이미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고, 불자들에게는 더욱 더 친숙하다.

'서유기'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배역중의 하나는 손오공으로 원숭이이다. 불교 경전과 설화에 나타난 원숭이는 지혜롭고 총명하며 용맹한 동물로 묘사하고 있는데, 불교에서는 원숭이가 부처전 생애이며 불법을 수호하는 호법 신장의 상징적인 동물로 친숙하면서도 특별한 존재로 여겨진다. 애뜻한 모성애와 다재다능한 능력으로 불교와 원숭이하면 빼놓을 수 없는 존재로 여겨진다.

불교계에서는 최초로 방송되는 '서유기'는 52부작의 장편드라마임에도 불구하고 지루하지 않은 이야기 전개와 설화 속 인물들이 재건을 부리는 장면에는 수준급의 그래픽으로 시청자들의 보는 재미를 더하고 상상력을 충분히 만족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국어 자막으로 제공된다.

'서유기'는 매주 금·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며, 재방송은 일요일 오후 2시 50분(2회 연속방송)이다. 이와 함께 BTN은 불교라디오 전용 앱 '올림'을 출시했다. '올림'은 불교관련 콘텐츠만으로 이루어져 불자들의 신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앱으로 현재 법문, 불교음악, 독경, 명상 등 4개 채널로 구성돼 있다.

특히 '올림'은 기존 플랫폼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자주 듣는 주요 채널 설정', 'APP 자동실행 및 종료기능', 'SNS 공유하기' 기능들이 있어 청취자들의 편의를 돕는다.

이밖에 BTN불교라디오 개국 1주년을 기념해 광덕, 무진장, 서암, 정락, 대행 스님 등 한국불교를 대표했던 큰스님들의 음성법문을 서비스한다. 신성민 기자

# '버림의 미학' 동근 원에 담아내다

## 윤양호 교수 '아는 것을 버린다' 개인전

사람들은 채움으로서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한다. 하지만 정작 채움을 통해 얻어지는 것은 많지 않다. 인생살이가 그렇고,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도 마찬가지다. 진정한 앎과 깨달음은 버릴 때 이뤄진다. 故 범정 스님도 자신의 수필 '버리고 떠나기'를 통해 '버림'의 의미를 이렇게 말한다.

"차지하고 채우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침체되고 묵은 과거의 늪에 갇히는 것이나 다름이 없고, 차지하고 채웠다가도 한 생각 돌이켜 미련없이 싹뻍 버리고 비우는 것은 새로운 삶으로 열리는 통로다."

윤양호 원광대 선종형예술학과 교수는 '버림'이 가지는 정신성과 철학을 미술작품을 통해 보여준다. 다채로운 색감과 다양한 형태의 원을 바탕으로 한 그의 작품은 말 그대로 선적인 느낌이 물씬 묻어난다.

선적 풍취가 담긴 윤 교수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오는 4월 8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종로 갤러리 고도에서 열린다. 전시 주제는 'Von Geist-아는 것을 버린다'로, 윤 교수가 끊임없이 천착하고 있는 화두이자 연작 시리즈이다. 이번 전시에는 미발표 작품을 포함한 총

25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윤 교수 작품의 콘셉트는 '미니멀리즘(Minimalism)'과 맞닿아 있다. 단순함과 반복성으로 절제된 그의 작품은 '버림'이라는 화두와 만나면서 동양적 정신을 그대로 드러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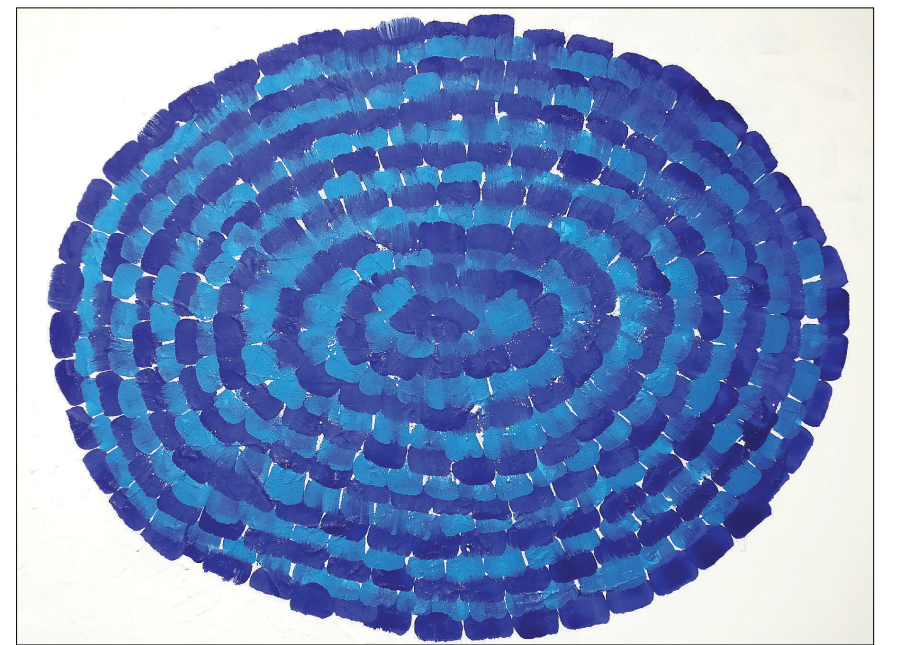
작품에 대해 윤 교수는 "작품을 통해 반복성과 변화, 정신성을 투영하기 위해 노력한다"면서 "작품을 위해 행해지는 무수한 반복 작업 안에서 정형화 될 수 없는 변화가 담겨 있다. 관념에서 탈피하는 것은 곧 선 사상과도 맞닿는다"고 설명했다.

박래경 미술평론가도 "한 생각을 극단적으로 절제된 형식으로 보여 줄 수 있는 것이 윤 교수 작품의 기하학적 기본형"이라며 "선불교에서 깊은 깨달음의 상징이 되는 원의 의미를 윤 교수는 자기 나름대로 예술로 심화시켜 나아갔다"고 평했다.

윤 교수의 작품에서 보여지는 원은 천차만별이다. 이는 작품을 그려내기 전 꼭 행하는 명상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윤 교수는 "작품을 그려내기 전, 반드시 명상을 한다"면서 "30분 정도 명상 후에 떠오르는 찰나의 이미지와 영감을



윤양호 교수의 연작 '아는 것을 버린다(162×130cm mixed media on canvas, 2015).' 원과 다양한 색채를 통해 그는 변화와 반복에 담긴 정신성을 보여주고 있다.



윤양호 교수의 연작 '아는 것을 버린다(117x91cm, mixed media, 2016).' 이브 클라인이 깨달음의 색으로 '청색'을 선호했듯이 윤 교수도 청색을 많이 사용한다.

- 4월 8~19일 갤러리 고도서
- 禪美담긴 작품 25점 선보여
- 반복·변화 통한 정신성 추구
- 30분 명상 후 그려낸 작품들
- 번득이는 영감의 진수 '눈길'

등 활발한 활동을 해온 윤 교수는 올해에도 6번의 전시회와 아트페어에 참가한다. 당장 5월 20일부터 국제 아트페어 'ART 부산'에 참가하며, 6월에는 독일에서 전시회가 예정돼 있다. 10월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국제 아트페어인 한국국제아트페어(KIAF)에 참가해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02)720-2223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 사진으로 써 내려간 경전 '禪流'

사진집단 일우 '선류' 전시회  
4월 11일까지 인사아트센터

김홍희 작가, 수불 스님 행적  
사진으로 담아... 52점 전시



김홍희 사진작가가 담아낸 수불 스님.

참선을 수행을 통해 대중들을 포교하고 있는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의 면면을 담아낸 사진 전시회가 열린다. 수불 스님이 직접 쓴 선시(禪詩)도 함께 전시된다. 사진집단 일우는 4월 11일까지 서울 인사동 가나인사아트센터에서 '선류(禪流)' 사진 전시회 및 사진집 출판 기념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 및 사진집은 김홍희 사진작가가 수불 선사의 모습을 담은 사진과 수불 스님의 친필로 된 '선시'가 조화된 '시·서 사진(詩·書 寫眞)'이 주된 구성이다. 전시 주제인 '선류(禪流)'는 절대적인 진리인 '선(禪)'을 현상화·문화화하는 것으로 즉, 진리의 형상 구현을 뜻한다. 전시에는 수불 스님의 면면을 다양한 측

면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경내 △포토페이트(초상) △불교행사 △예술 △포교활동 △신자와 함께 등 6개 세부 주제로 구성됐다.

이번 전시를 위해 김 작가는 스님을 따라 중국, 일본부터 동남아시아까지 다녔

다. 김 작가는 평소 참된 선지식을 찾으려 다녔고, 활영을 위해 올라간 범어사에서 만난 수불 스님에게 감화됐다. 이후 김 작가는 수불 스님에게 프로젝트를 제안했으며, 스님은 흔쾌히 승낙했다.

수불 스님의 선시와 김 작가의 사진은 사유의 체계 속에서 인위적으로 체계화시킨 결과물이 아닌, 선을 통한 영감(靈感)으로 주어지는 즉발적인 결과물이다.

주최 측은 "스님과 작가의 선시와 사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이나 분명히 존재하는 선(禪)"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이 섬세한 사진과 선시는 '선류'라는 이름의 흑백 4도, 494쪽의 대형 사진집으로 묶였다. 사진과 더불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까지 4개 국어로 번역된 수불 스님의 선시가 수록됐다. 전시에는 이중 연선된 52점의 작품과 아카이브가 공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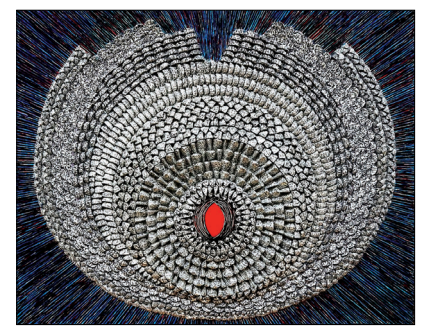
주최 측은 "선지식의 면면이 담긴 작품들을 통해 진리가 세상에 현현하는 찰나를 경험하고 이 같은 기록을 후대에 남기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02)736-1020 신성민 기자

## 서예와 설치미술의 만남 신선하네

카이로스 허회태미술관 1주년 '허회태'展

오는 4월 30일까지 개최



허회태 작가의 '非想非非想(Neither thought nor non-thought, 80x10cm)'

문자와 이미지의 만남인 이모그래피와 서예와 설치미술을 조명한 작품으로 주목 받는 허회태 작가의 개인전이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 간 열린다. 이번 전시는 강원도 춘천시에 소재한 카이로스 허회태미술관의 개관 1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것으로 서예가이자 조형미술가인 허 작가의 50년 작품 세계를 만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허 작가의 대표 시리즈 '비상비비상(非想非非想)'이다. 그의 사상과 철학을 특유의 글씨체로 작은 한자에 써 내려가 개체를 만들고 이를 모아 평면에서 공간으로 조형해낸다.

외형적 형식도 '만다라'와 유사하다. 또한 수많은 형상들이 맺혀 있는 '만화경'과도 닮았다. 외면과 내면을 이어내는 통로로서의 '만다라'와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실의 '만화경'은 둘이며 하나이다.

주최 측은 "허 작가의 작품세계에는

정신과 혼을 정령하기 위한 표현이며 자신만이 갖는 새로운 조형질서와 현대 미술을 도입하여 시대감각에 부응하는 신개념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허회태 작가는 1995년 대한민국 미술대전 서예부문 대상을 시작으로 원곡서예상, 서예문화상, 서예대전 전각 우수상,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선 및 특선8회, 한·카문화재단 주최 국제미술전 최고상 등을 수상했다. 현재 연변대 미술대학 회화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02)588-3324 신성민 기자

## 신성불상

부처님 조성 | 도금(진공) 개금 | 기계개금(순금중착) 천불전 | 삼천불전 | 만불전

은 누리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 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랫동안 축적된 장인의 손을 거쳐 지금은 다양하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항상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불사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대표 한광식

신성불상 ☎ 031-533-7724, 010-5223-5174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금원리 362-6

## 바쁜 하루... 삭발할 때 상처없이 밀어지는 방법은 없을 까?

머리결이 강해 고생하는데... 스님! 削髮면도 힘드셨죠! 이젠 안심하십시오! 스님 삭발전용 비누가 있습니다

스님 삭발용 편백비누 削髮快

편백원목오일 초정광천수 함유  
부드러운 삭발 두피손상방지 피부자극최소화

■ 구입 문의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단재로 1961  
☎ 043)296-7776 | 010-3280-7776